

이통사 마케팅비 줄었다

단통법 덕택... 3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 줄어 20% 요금할인 가입 증가로 평균매출 정체현상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유류구조개선법(일명 단통법)에 울고 웃었다. 공시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단통법 덕택에 마케팅비는 최대 100억원 넘게 줄일 수 있었지만 20%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둔화세를 보였다.

29일 통신3사 1분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분기 마케팅비로 7170억원을 지출했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마케팅비가 129억 줄어든 15.3% 감소, 전분기대비 0.6% 감소세를 보였다.

KT는 1분기 마케팅비에 6555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케팅비가 85억 줄어든 1.4% 감소, 전분기 대비 11.6%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1분기 마케팅비는 4777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5.2%, 전분기대비 9.7%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이통사 마케팅비는 줄었지만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택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가입자당평균 매출은 정체를 보였다.

지난 27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는 1분기 매출 2조7128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6.1%, 10.3% 오른 수치다. 1분기 휴대폰 가입자는 같은 기간 4.7% 증가한 약 1210만명을 기록했다. LTE 서비스 가입자는 1019만명으로 전체 무선가입자의 84.2%를 차지했다.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높은 LTE 가입자 비율이다.

실적발표회에서 이혁주 최고책임자 임자는 "LG유플러스의 20% 요금할인 가입자 비율은 9%로 예상했던 것보다 증가속도가 30% 빠르고, 그 영향도 가입자당 750원으로 상당하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타격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ARPU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

리엄 단말과 고가요금제 가입을 늘리고 비디오 서비스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콜클럽'과 'H클럽' 등의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속도가 조금이라도 완만해지면 ARPU 증대 활동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SK텔레콤은 1분기 매출 4조 2285억원, 영업이익 40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지난해말 기준 196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7.5%를 넘어섰다.

SK텔레콤 측은 "신규 가입자의 30%가 요금할인을 택하고 가입비 폐지 제도 등이 실적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SK텔레콤 자체가 SK플래닛 등의 실적 악화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영업이익은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자회사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SK텔레콤은 SK플래닛을 사업부별로 분할하고, SK브로드밴드는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를 출시하며 신사업에 투자했다. /안진수 기자



어린이 날 완구대전 지난 29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어린이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날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에서 '어린이 날 완구대전'을 진행한다.

가정의 달 받고싶은 선물 1위 '노트북·태블릿 PC'

소비자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받고 싶은 전자제품 1위로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꼽았다.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받고 싶은 전자제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스마트폰 24%, 안마의자 및 안마·찜질기는 9%, TV는 7%, 커피·주스메이커는 5%의 응답자가 받고 싶은 선물로 뽑았다. /이성주 기자

‘추추전국’ 커피업체 희비 교차

주요 커피전문점 업체들이 지난해 실적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커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명암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당수 커피전문점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커피전문점 '커피코리안'은 지난해 매출 실적을 공시한 2003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은 1389억원을 기록해 전년(1463억원) 대비 5%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24억원에서 39억원으로 무려 68.5% 급감했다. 거의 3분의2 토막이 난 셈이다.

탐앤타스도 지난해 성장세가 둔화했다. 탐앤타스는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2013년 16.5%, 2014년 17% 등으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0.2%(매출 888억원)로 둔화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44억원으로 32% 감소했다. /이성주 기자

4월중 도내 기업경기지수 상승

제조업 50→61
비제조업 55→65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경기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기업경기지수(BSI)도 전월대비 뚜렷한 상승을 보였다.

또한 다음 달인 5월 중 전북지역 연합 전망도 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호전될 것으로 조사돼 '경기보릿고개'를 넘었다는 전망이다.

2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6년 4월 중 전북지역 기업의 업황 BSI는 제조업은 50에서 61로 비제조업은 55에서 65로 각각 11p, 10p 상승했다. /정영수 기자

또한 한은 전북본부는 5월중 전북지역 업황 전망 BSI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북지역 BSI 상승 요인은 매출 증가가 주 요인으로 보인다.

지역 업체들의 BSI는 제조업부문은 매출(64→75)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생산(82→85)과 신규수주(74→81), 가동률(80→82), 자금사정(76→80), 인력사정(89→92) 등의 증가가 보였지만, 반면 채산성(86→87)과 생산실비수준(106→105), 설비투자실행(90→91) BSI는 전월과 비슷했다. 제품재고수준 BSI는 전월대비 하락(110→103)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銀 'JB카드 가정의 달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JB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1일부터 30일까지 JB개인 신용카드를 해당업종(놀이공원, 음식점, 온라인,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응모고객에 한하여 1만원 캐시백을, 5월 6일과 7일을 비롯해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석가탄신일(14일), 스승의 날(15일), 부부의 날(21일) 등 Lucky 7 days에는 해당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사용시 5천원, 40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60만원 이상 사용시 2만원의 캐시백 더블 찬스가 주어진다.

또한 가족여행권 추첨 이벤트로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JB개인 신용

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 고객 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족여행권을 증정하며, 50만원 이상 사용고객 5명에게 5만원 기프트카드를, 30만원 이상 사용고객 50명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도 화끈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부산 대명 아쿠아 월드에서 주중 50% 주말 40% 할인, 군산 테디베어 박물관에서 30%할인, 진안 홍삼 스파에서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또 추가로 전국 모든 가맹점(조세업종 제외)에서 3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주 10대(여행, 항공, 온라인,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자동차, 가전, 병원, 약국, 면세점)업종에서는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실시한다. /정영수 기자

“경구피임약은 불임의 원인?”

심승혁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전혀 아니다”

“경구피임약은 불임의 원인이다?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경구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인(합성프로게스테론) 복합제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고자 만들어진 약제다.

국내에서는 많은 오해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대한산부인과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뉴질랜드의 피임약 복용률은 40.6%, 프랑스 36%, 미국 14.3%, 한국은 2.8%였다.

심승혁 건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경구피임약은 건강한 여성이 정해진 복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한 약제”라며 경구피임약에 대한 오해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 교수는 경구 피임약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환자들이 계속 약으로 난소 기능을 억제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못하냐고 묻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역적인 약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몸이 제 상태로 돌아온다. 또 피임약을 중단하면 이론적으로는 2주 이내에 배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피임약을 복용하다 중단하면 일정 기간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래 복용하면 초산 연령이 미뤄진다. 임신 능력은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진다”며 “항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은 피임약이 아닌 몸의 노화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냐는 물음에 “젊고 건강한 여성은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는다”라며 피해야 할 경우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호르몬 관련 종양이나 유

방암을 가진 여성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병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피임약을 먹어서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간 기능 부전이면 먹으면 안 된다. 간질약을 먹는 사람은 간기능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어 피임약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혈전증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더불어 피임약을 오래 복용해도 태아가 기형이 되거나 유산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지만, 임신한 여성은 복용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1950년대 에스트로겐이 높았던 약이 기형아를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오래 복용한다고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신한 도중에 여성호르몬이 태중 남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먹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